

“봉사는 젊게 사는 비결이에요” 원당농협 채움봉사단 이옥희 단장

처음 봉사를 시작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1998년 주교4리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으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20년 전이 되었다. 이렇게 오래 봉사를 하면서 낯을 가리는 성격도 조금씩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도 봉사 덕이다. 이옥희(71) 단장은 누군가를 도우면서 얻는 뿌듯함, 마음이 젊어지는 데 이보다 좋은 영양제가 없다고 말한다.

글. 공주영(편집부) 사진. 주효상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어르신을 돕기 위해 결성된 실버봉사단

친구의 권유로 주교4리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으면서 시작한 봉사는 복지관 어르신을 돕는 일이었다. 복지관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 차매운동도 돕고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도 조리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던 새마을부녀회를 위해 2002년 원당농협에서 중앙대학교 요양관리사 교육을 받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원당농협에서 제안한 것이 ‘실버봉사단 창단’이었다. 그렇게 ‘채움봉사단’이 시작됐다. ‘고양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라는 단체 회원을 비롯해 17~18명이 초기 멤버였다.

50대부터 70대까지 회원들의 나이도 폭넓지만 학원강사,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업도 다양하다. 직장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들 성실하고 열성적이다. 그사이 회원도 24명으로 늘었다.

“저희 봉사단은 순수하게 봉사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주로 이동 목욕 봉사와 농가를 돕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힘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려고 해요. 봉사일정이 뜨고 모집 인원을 올리자마자 바로 마감될 정도예요. 봉사 일정에 따라 휴가를 조정하는 분도 있죠”

이동 목욕 봉사의 경우, 탑차 안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이라 여름에는 숨이 턱 막힐 때도 있다. 그래도 이옥희 단장은 한번도 그 일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봉사 활동 중 하나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깨끗하게 씻겨 옷을 입혀드릴 때 느끼는 뿌듯한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처럼 순수하게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이니, 그 고운 마음의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옥희 단장은 회원들을 보며 계속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회원들과 함께 지금처럼 꾸준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봉사도 쉽지 않은 것이 됐다. 특히 복지관은 외부인 출입금지가 되면서 봉사를 나가기가 어려워



졌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농사 봉사를 주로 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그 대상이었다.

“한여름 퇴약벌에서 감자 캐는 일을 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만하자는 말이 없어요. 주어진 일은 다 끝내고 가자고 하죠. 회원들이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그런데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그조차도 어려워졌다. 봉사 요청을 하는 농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옥희 단장 마음도 안타깝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길 바랄 뿐이다.

어느새 일흔이 넘는 나이. 최근에는 더이상 봉사를 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옥희 단장은 고개를 내젓는다.

“저희 봉사단에는 저 말고도 칠십대인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죠. 제가 동안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봉사덕분인 거 같아요. 마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깐요”

이옥희 단장은 봉사의 장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말한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계속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쩌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건강한 건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며 웃는 이옥희 단장. 그녀의 바람대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회원들과 함께 남을 도우면서 스스로도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 모습이 그려진다.